영어어문교육 *제19권* 4호 2013년 겨울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독해에 대한 메타인지 인식과 독해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

최 숙 자
(호서대학교)
장 선 미*
(호서대학교)

Choi, Sookja & Chang, Sunmee. (2013). A study on metacognitive awareness and reading strategy use of Korean EFL university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9*(4), 403-426.

The present study reports an investigation into Korean EFL university students' metacogntive awareness and reading strategy use according to their English reading proficiency levels. With the use of reading comprehension scores of TOEIC, the students grouped into three levels: low, intermediate, and high. A total of 202 college students responded to a metacognitive awareness questionnaire and an actual reading strategy use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metacognitive awareness in confidence as a reader, reading difficulties, effective reading strategies, and problem-solving strategies in perceived reading strategy use(problem-solving strategies, global reading strategies, support reading strategies and local reading strategi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reading proficiency. The higher level readers showed more confidence as readers and tended to be top-down in their perceptions of effective reading strategies. On the contrary, the lower level readers seemed to struggle more with reading difficulties and tended to be bottom-up in their perceptions of effective reading strategies. And, in terms of awareness of reading strategy use, the high level readers perceived to use problem-solving strategies more frequently than the medium level and the low level readers. The students'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y use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ir actual use of the reading strategies. Readers tended to have higher awareness of their reading strategy use than their actual use of those reading strategies.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at teachers should provide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raise metacognitive awareness of their reading and reading strategies so that they can be more responsible, strategic and efficient readers for their own reading.

[메타인지인식/독해전략사용/대학 교양영어/토익]

* 교신저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I. 서론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는 구어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 독해력은 문어적 의사소통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차지한다. 따라서 독해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또는 EFL 학습자들에게 필수적인 기술이며 강화된 독해 기술을 지니고 있는 학습자들은 모든 학문적 영역에서 큰 진전과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숙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언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Anderson, 1999). 독해 연구가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의 인지적 과정과 특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독해에 영향을 미치는 독해전략과 메타인지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독해전략과 메타인지는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독해를 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독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정리하면 독해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인지적 과정으로 어휘와 문법지식을 이용하여 글을 해독하는 해독과정과 학습자들의 배경지식, 사회문화적 지식들을 텍스트에 가져와 상호작용하며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해가는 이해과정을 포함한다. 특히 단어와 문법구조에 대한 지식은 초기 단계의 해독과정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Anderson(1999)은 독해자의 어휘 인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때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Ying과 Alysia(2011)는 L2 독해에서 언어지식(어휘와 통사지식)이 독해전략에 대한 메타인지 인식보다 독해능력을 예측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함으로써 독해에서의 어휘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독해는 또한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전략들을 사용하여 의미를 구성해가는 전략적 과정을 수반하는 활동이다. 이에 Cross와 Paris(1988)는 독해를 텍스트로부터 글을 해독하고,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해 다양한 인지 전략들의 조율을 필요로 하는 역동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진정숙(2009)도 학습자가 텍스트와 상호작용 하는데 있어 단어와 숙어뿐만 아니라 경험이나 배경지식 등도 독해에 기여한다고 봄으로서 독해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Block(1986)은 독해전략은 독자가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문맥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며, 읽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고, 또 읽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러한 면에서 독해 전략은 학습자들의 독해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독해에서 독해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진행된 독해 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독해능력이 우수한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들의 특성들이 밝혀져 왔다(Anderson, 1991; Block, 1986; Grabe & Stoller, 2002; Hosenfeld, 1977). 더 나아가 성공적인 독해에서 메타인지 인식의 중요한 역할이 확인되면서 독해 전략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의 인지적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자원들에 대한 지식과 그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밝히는 측면에서 메타인지 인식에 초점을 두고 메타인지인식과 독해전략사용 그리고 독해능력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밝혀왔다(Barnett, 1988; Carrell, 1989; Monteiro, 1992; Upton, 1997; Zhang, 2001).

국내에서도 학습자들의 메타인지인식이 독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김지영, 2001; 김진관, 2007; 진혜원, 2002)이 있지만 주로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따라서 미래적 목표를 위해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독해학습이 요구되는 대학생들의 독해 능력에 따른 메타인지인식과 독해전략사용에 대한 차이를 규명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독해지도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독해에서 메타인지인식은 자신의 독해전략과, 독자로서의 자신, 그리고 독해 과제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독해에 대한 자신감과 독해 과제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 효과적인 독해 전략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독해전략에 대한 지식을 반영하는 메타인지인식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의 독해 수행과 독해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독해 능력에 따라 메타인지인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들의 독해전략사용에 대한 인식과 실제 독해전략사용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독해전략

EFL 환경 속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자신의 제한된 영어 능력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언어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데 독해전략이란 독자가 효과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고,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취하는 구체적 행동이며 정신적 과정이다. 또한 어휘나, 문법지식과 같은 통사적, 의미론적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경지식과 문맥의 단서를 이용하여 예측하고 추측해 감으로써 텍스트의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가 사용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독해전략에 대한 연구들은 모국어로 된 문장을 독해하는 전략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모국어로 된 지문을 읽을 때 다양한 전략의 사용이 학습자들의 독해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제 2언어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독자와 비성공적인 독자들이 사용하는 독해전략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Hosenfeld, 197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Kletzien, 1991).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osenfeld(1977)는 특정한 종류의 독해전략이 제 2 언어 지문 읽기의 성공여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성공적인 학습자들은 독해 중에 큰 단위부터 읽어 나갔고, 전체적인 지문의 의미에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건너 뛰었으며, 또 무엇보다도 독자로서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erson (1991)은 학습자들에 의한 전략 사용에 있어 개인적 차이를 보고자 하였는데 연구 결과 독해 과제의 성공에 기여하는 전략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언어 능력이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언어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은 전략들을 보다 더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Kletzien(1991)은 텍스트 난이도별로 우수한 독자와 미숙한 독자들이 사용하는 독해 전략의 차이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 결과 우수한 독자와 미숙한 독자 모두 같은 독해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우수한 독자는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독해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으며, 전략을 조절하여 사용하는 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메타인지 인식과 독해전략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의 인지적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이며, 학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적 과정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조작하는 능력이다(Flavell 1979). 메타인지는 일반적으로 크게 인지 지식(knowledge of cognition)과 인지 조절(regulation of cognition)로 분류되고 있다(Baker & Brown, 1984; Brown, Bransford, Ferrara & Campione, 1983; Carrell, Gajdusek & Wise, 1998). Flavell(1979)은 메타인지 지식이 개인변인(person), 과제변인(task), 전략변인(strategy)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Garner(1987)도 메타인지 지식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학습자에 대한 지식으로 학습자로서 자신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 과업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이 수행하게 될 인지적 과업에 대한 분석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전략에 대한 지식으로 특정 과업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메타인지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인지 조절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므로 메타인지 전략 또는 초인지 전략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인지 지식이 자신과 과제와 전략에 대한 지식으로 의식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인지 조절은 과제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메타인지 지식에 근거해 작용하며 학습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인지 과정을 관리(management)하는 것을 일컫는다.

메타인지 지식은 메타인지 인식이라고도 불리는데 메타인지 인식은 성공적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독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해전략과 메타인지 인식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메타인지 인식이 높은 독자는 독해 목적과, 과제 요구, 그리고 자신들의 인지유형에 맞는 독해전략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이해과정을 모니터하며 선택한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전략들을 조절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Cohen, 1998; Hudson, 2007; Paris, Lipson, & Wixson, 1983), 훌륭한 독자들은 자신들의 이해 정도를 잘 모니터하고 텍스트의 특성과 독해 중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독해전략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lock, 1986; Carrell, Pharis & Liberto, 1989; Sheorey & Mokhtari, 2001). 따라서 독해능력이 보다 우수한 독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사용에 대한 메타인지 인식이 더 높고 이러한 메타인지 인식이 독해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Baker & Brown, 1984; Garner, 1987).

독해에 대한 메타인지 인식에 관한 몇몇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Carrell(1989)은 메타인지 인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L1과 L2 독자들의 메타인지 인식과 독해전략사용, 그리고 독해능력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독해 능력이 보다 우수한 ESL그룹은 총체적 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적인 전략과 어려움을 주는 요인을 지각하는데 있어 하향식(top-down) 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Sheorey와 Mokhtari(2001)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ESL 학습자들과 영어 L1 학습자들 사이의 메타인지 인식과 독해전략사용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 ESL 학습자들과 영어 모국어 학습자들 모두 독해전략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두 그룹 모두에게서 독해력이 보다 우수한 학습자들이 독해전략 사용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Zhang(2001)은 EFL 학습자들인 중국 대학생들의 언어 능력에 따른 메타인지 전략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는데 연구 결과 독해전략 사용에 있어 우수한 학습자들과 미숙한 학습자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수한 학습자들은 독해전략에 대한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미숙한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수한 EFL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독해에 대한 자신의 메타인지적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보다 효과적인 총체적 전략들을 사용하는 반면에 미숙한 학습자들은 독해에 관련된 자신의 메타인지적 인식이 결여 되어 있었으며, 지엽적 전략들에 의존한다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국내에서도 진혜원(2002)과 김진관(2007)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Carrell (1989)의 메타인지인식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독해능력이 우수한 학습자일수록 독해에 대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독해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어휘지식과 문법지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인 독해 전략인식에서도 약간의 상이한 결과를 보이지만 독해능력에 따른 인식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독해와 독해 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메타인지 인식과 학습자의 독해 수행 능력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대학생의 독해능력에 따른 메타인지 인식과 독해전략사용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중부지역에 소재한 한 대학의 1학년 20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구 대상의 독해 능력은 교내에서 실시한 모의 토익(500점 만점) RC 점수에 근거하여 상위 집단 38(18.8%)명, 중위 집단 111(55.0%)명, 그리고 하위집단 53(26.2%)명으로 구분하였다. 토익의 독해 평균 점수는 154점이었으며, 최고 점수는 305점, 최저 점수는 65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그룹은 201점 이상, 중위 그룹은 101점에서 200점, 그리고 하위 그룹은 100점 이하로 구분하였다.

2. 연구도구

이 연구는 자기평가기입법에 기초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독해에 대한 대학생들의 메타인지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Carrell (1989)의 메타인지 설문지(MQ: Metaconitive Questionnaire)와 Mokhtari와 Sheorey(2002)의 독해전략 설문지(SORS: Survey of Reading Strategies)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였다. Carrell의 메타인지 설문지에서는 자신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 그리고 효과적인 독해전략 인식에 해당되는 범주를 사용하였다. 효과적인 독해 전략 인식은 독해에 대한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을 반영하는데 상향식 과정은 단어의 의미, 문법구조 등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하향식 과정은 문맥을 통한 의미 추측이나, 내용 예측, 배경지식 등의 활용을 강조한다. 학생들의 독해 전략 사용 인식과 실제 사용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Mokhtari와 Sheorey (2002)의 SORS(Survey of Reading Strategies) 설문지를 사용하여 총체적 전략, 문제 해결 전략, 그리고 지원적 전략의 기본적 설문구성에 지엽적인 전략 범주를 추가하여 본 연구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총체적 전략(Global Reading Strategy: GLOB)은 독해 행위의 배경을 제시해 주기 위한 일반적인 독해전략이고, 문제해결 전략(Problem Solving Strategy: PROB)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두고 본문의 정보 이해를 위해 일어나는 문제를 보수하는 독해전략을 말하며, 지원적 독해전략(Support Reading Strategy: SUP)은 독해에서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해주는 전략이다. 그리고 추가된 범주인 지엽적 전략은 어휘나, 문법 구조 등 세부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는 전략을 일컫는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는데 산출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α=.667~.782로 비교적 높게 나와서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설문지 구성내용

이 연구는 독해에 대한 대학생의 메타인지 인식과 실제 사용 독해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내용으로 먼저 메타인지 인식은 크게 자신감에 대한 인식,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의 독해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인식은 다시 상향식 인식과 하향식 인식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용 독해전략은 학습자들이 독해를 할 때 실제 사용하는 독해전략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했다. 먼저 메타인지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학습자들이 설문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또한 독해전략 문항들에 대한 반복적인 조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독해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용 독해전략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1개월 후 토익 part7 지문과 일반 독해교재에서 발췌한 지문으로 구성한 독해 시험을 간단히 치른 후 곧 바로 학생들이 독해를 하면서 실제 사용했던 독해전략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수된 설문지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부의 분석 자료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연구 가설은 유의수준 α=.05에서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분석 기법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IV. 결과 및 논의

1. 독해능력에 따른 메타인지 인식의 차이

대학생들의 독해능력에 따라 어떠한 메타인지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해능력을 상위 집단, 중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독해능력별로 자신감 인식, 어려움 인식, 효과적인 독해전략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독해전략 사용 인식에 대한 집단 간 평균을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독해능력에 따라 대학생의 메타인지 인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및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해능력에 따라 학습자의 메타인지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신감 인식, 어려움 인식, 상향식 인식, 하향식 인식,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 사용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신감에 있어서는 상위 집단이 독해에 대해 가장 높은 자신감(3.26±.46)을 보였으며, 반대로 하위집단(2.90±.56)이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해능력이 낮을수록 독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감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진혜원(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김진관(2007)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김진관의 연구에서는 상위집단도 어려움을 인식하는 부분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즉 어려움을 느끼는 데에는 독해능력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효과적 독해전략 인식의 하위 항목에서는 중위 집단이 상향식 전략이 가장 유용하다고 인식한 반면 상위집단은 하향식 독해전략을 가장 유용하다고 인식함으로써 하향식 독해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독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집단은 상향식 인식과 하향식 인식에서 모두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 효과적인 독해전략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독해전략 사용에 있어서는 문제해결전략에서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위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문제해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 다른 전략 범주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총체적 전략은 상위집단(3.30±.49)이 그리고 지원적 전략과 지엽적 전략은 중위집단(각각 3.14±.43, 3.04±.54)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 상위 집단이 독해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분석하는 실행적 전략들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비해 중위 집단은 독해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중에 더 잘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원적 전략들을 더 효과적인 독해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

독해능력에 따른 메타인지 인식의 차이 검증

변 수			N	Mean	SD	F-value	Post-hoc LSD
자신감 인식		상(1)	38	3.26	.46	4.608*	1>3, 2>3
		중(2)	110	3.14	.62		
		하(3)	58	2.90	.56		
어려움 인식		상(1)	38	3.07	.52	5.413**	1<3, 2<3
		중(2)	110	3.27	.64		
		하(3)	58	3.50	.63		
효과적 독해전략	상향식 인식	상(1)	38	3.45	.35	3.698*	2>3
		중(2)	110	3.66	.55		
		하(3)	58	3.43	.69		
	하향식 인식	상(1)	38	3.72	.53	6.884***	1>3, 2>3
		중(2)	110	3.66	.50		
		하(3)	58	3.37	.55		
독해전략 사용 인식	총체적 전략	상(1)	38	3.30	.49	1.888	-
		중(2)	110	3.24	.47		
		하(3)	58	3.12	.42		
	지원적 전략	상(1)	38	3.12	.37	2.882	-
		중(2)	110	3.14	.43		
		하(3)	58	2.97	.40		
	문제해결 전략	상(1)	38	3.50	.41	5.990**	1>3, 2>3
		중(2)	110	3.44	.52		
		하(3)	58	3.20	.39		
	지엽적 전략	상(1)	38	2.95	.49	1.368	-
		중(2)	110	3.04	.54		
		하(3)	58	2.89	.51		

* $p<.05$ ** $p<.01$ *** $p<.001$

1) 독해능력에 따른 자신감 인식의 차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항목별 평균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3.45±.88)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문을 이해하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다」(3.38±.98)에서 가장 높은 자신감을 보여 학습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 자신들의 배경지식을 이용하고 독해 중에 자신들의 이해 정도를 인식하는데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가 말하는 내용의 중요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2.58±.87)는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수용적으로 글을 읽어나가는데 익숙하고 비판적 읽기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평적 읽기는 수준 높은 독해의 단계로 Carrell(1989)은 외국어 읽기에서 내용의 중요성이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적 능력은 독해능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의 연구에서 보여준다. 독해능력과 자신감 인식에 대한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문에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다」, 「지문에서 나중에 나온 정보와 앞에 나왔던 정보를 연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문을 이해하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독해능력이 우수할수록 예측하는 능력, 내용간의 관계를 연결하기, 그리고 이해 정도를 점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독해능력에 따른 자신감 인식의 차이 검증

		구 분	상 Mean (SD)	중 Mean (SD)	하 Mean (SD)	합계 Mean (SD)	F
자신감 인식	1	지문에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다.	3.26 (.82)	3.04 (.96)	2.62 (.86)	2.97 (.93)	6.093**
	2	잘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때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3.32 (.84)	3.24 (.89)	2.98 (.86)	3.19 (.88)	2.090
	3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	3.50 (.86)	3.47 (.90)	3.36 (.85)	3.45 (.88)	.367
	4	작가가 말하는 내용의 중요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2.55 (.76)	2.63 (.96)	2.51 (.75)	2.58 (.87)	.374
	5	지문에서 나중에 나온 정보와 앞에 나왔던 정보를 연관시킬 수 있다.	3.50 (.72)	3.16 (.86)	2.94 (.81)	3.17 (.84)	4.972**
	6	지문을 이해하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다.	3.68 (.80)	3.45 (1.00)	3.02 (.95)	3.38 (.98)	5.980**
	7	글의 요지와 이를 뒷받침해 주는 내용을 잘 알아낼 수 있다.	3.03 (.85)	2.99 (.93)	2.92 (.87)	2.98 (.90)	.157

* $p<.01$

2) 독해능력에 따른 어려움 인식의 차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목별 평균을 보면 「문법구조 및 규칙이 어렵다」(3.90±.8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어나 숙어의 의미 파악이 어렵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50±.92)가 다음으로 이어졌다. 「주제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과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다」(2.88±.90)는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고, 「지문의 전체적인 의미 파악이 어렵다」(2.98±.94)는 그 다음으로 낮은 평균을 보여 대체적으로 학습자들이 배경지식을 이용하거나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덜 느끼지만 문법이나 어휘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인 「문법구조 및 규칙이 어렵다」는 하위집단(4.11±.72), 중위집단(3.88±.91), 상위집단(3.66±.96)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왔으며, 「글의 구조파악이 어렵다」는 하위집단(3.47±1.04), 중위집단(3.19±1.00), 그리고 상위집단(2.95±.89) 순으로 평균을 보여 상위 집단과 중위 집단에 비해 하위 집단이 어려움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독해능력이 낮을수록 문법과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
독해능력에 따른 항목별 어려움 인식의 차이 검증

	구 분	상 Mean (SD)	중 Mean (SD)	하 Mean (SD)	합계 Mean (SD)	F
어려움 인식	1 단어나 숙어의 의미 파악이 어렵다.	3.39 (.85)	3.45 (.97)	3.70 (.84)	3.50 (.92)	1.643
	2 문법구조 및 규칙이 어렵다.	3.66 (.96)	3.88 (.91)	4.11 (.72)	3.90 (.88)	3.029*
	3 주제에 대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다.	2.63 (.88)	2.87 (.88)	3.08 (.93)	2.88 (.90)	2.707
	4 지문의 전체적인 의미 파악이 어렵다.	2.76 (.88)	2.95 (.95)	3.17 (.95)	2.98 (.94)	2.113
	5 글의 구조(짜임새) 파악이 어렵다.	2.95 (.89)	3.19 (1.00)	3.47 (1.04)	3.22 (1.00)	3.157**

* $p<.05$ ** $p<.01$

3) 독해능력에 따른 효과적 독해전략 인식의 차이

표 4에서 보듯이 상향식 항목에서는 「단어나 숙어에 대한 지식」(4.26±.82)과 「문법구조나 규칙에 관한 지식」(3.71±.87) 순으로 평균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기」(3.10±.96)는 가장 낮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평균을 보이고 있다. 하향식 항목에서는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 이해하기」(4.12±.70), 「잘 모르는 어휘나 표현은 문맥상으로 추측하기」(3.97±.73), 「글의 흐름이나 구조 알기」(3.96±.82)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왔다.

따라서 학습자는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서는 어휘와 문법 같은 언어 지식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추측하고, 글의 흐름이나 구조를 아는 것을 다음으로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문법 지식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어나 숙어 같은 어휘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결과는 김용주(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언어 지식은 텍스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 항목은 「영.미 문화에 대한 이해」(2.85±.93)로 학습자가 독해에서 문화의 이해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문화적 이해나 배경지식이 독해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독해와의 관련성을 간과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세부적인 것의 내용에 초점을 두기」(3.10±.96)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항목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의 읽기 지도가 내용이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집단 간 독해능력에 따른 효과적 독해전략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향식 독해전략인 「정확한 해석과 번역하기」, 하향식 독해전략인 「잘 모르는 어휘나 표현은 문맥상으로 추측하기」, 「지문의 요지 이해하기」, 「글의 흐름이나 구조 알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확한 해석과 번역은 중위 집단(3.59±1.00)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하위 집단(3.34±1.09) 그리고 상위 집단(3.11±(.92) 순으로 나타났다. 「추측하기」, 「지문의 요지 이해하기」, 「글의 흐름이나 구조 알기」 등의 하향식 항목은 상위집단(각각 4.29±.51, 4.37±.58, 4.16±.75)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해능력이 높을수록 하향식 전략인 추측하기, 글의 요지를 이해하고 글의 흐름이나 구조를 아는 것을 보다 효과적인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정확한 해석과 번역은 중위 집단의 학습자들과 하위 집단의 학습자들과의 관련성을 보이는데 이 항목은 상향식 독해에 포함되는 전략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향식 전략인 단어의 의미와 문법 구조와 독해능력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한 Carrell(1989)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4

독해능력에 따른 항목별 효과적 독해전략 인식의 차이 검증

		구 분	상 Mean (SD)	중 Mean (SD)	하 Mean (SD)	합계 Mean (SD)	F
효과적인 독해전략 인식	상향식 인식	1 단어나 숙어에 대한 지식	4.42 (.68)	4.30 (.73)	4.04 (1.03)	4.26 (.82)	2.816
		2 문법 구조나 규칙에 대한 지식	3.76 (.91)	3.78 (.80)	3.53 (.99)	3.71 (.87)	1.601
		3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기	2.89 (.92)	3.20 (.98)	3.06 (.94)	3.10 (.96)	1.496
		4 사전 사용하기	3.11 (.89)	3.41 (1.00)	3.21 (.98)	3.30 (.98)	1.741
		5 정확한 해석, 번역	3.11 (.92)	3.59 (1.00)	3.34 (1.09)	3.44 (1.02)	3.625*
	하향식 인식	6 잘 모르는 어휘나 표현은 문맥상으로 추측하기	4.29 (.51)	4.05 (.73)	3.58 (.74)	3.97 (.73)	12.622***
		7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 (요지) 이해하기	4.37 (.58)	4.17 (.64)	3.85 (.81)	4.12 (.70)	6.951***
		8 제목이나 첫 문장을 읽고 내용 추측하기	3.66 (.99)	3.68 (.86)	3.42 (1.00)	3.60 (.93)	1.490
		9 지문의 주제나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	3.58 (.97)	3.43 (.94)	3.30 (.82)	3.43 (.91)	1.015
		10 영·미 문화에 대한 이해	2.71 (.89)	2.96 (.95)	2.72 (.90)	2.85 (.93)	1.799
		11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	3.32 (1.04)	3.30 (.98)	3.15 (.86)	3.26 (.96)	.482
		12 글의 흐름이나 구조 알기	4.16 (.75)	4.06 (.75)	3.60 (.92)	3.96 (.82)	7.285***

* $p<.05$ *** $p<.001$

4) 독해능력에 따른 독해전략 사용 인식의 차이 검증

(1) 독해능력에 따른 총체적 독해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검증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해능력별 총체적 전략 사용 인식의 항목 간 평균을 보면 「지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문에 나와 있는 표, 수치, 그림 등을 이용 한다」가 3.80±.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문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해를 돕기 위해 문맥상의 단서를 사용 한다」 3.64±.81,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독해를 할 때 지문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추측해 본다」가 3.56±.82로 높게 나타났다.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 한다」는 2.25±.84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지문에서 제공되는 수치나 그림 문맥상의 단서를 사용하고 지문의 내용에 대해 미리 추측하기 전략 사용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판적 읽기와 분석적 사고를 요하는 독해 전략들은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읽기와 분석적 사고는 독해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인데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연구에 참여한 전체 학습자들의 미숙한 독해 실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독해능력에 따른 총체적 전략 인식에서는 어떤 항목에서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독해능력에 따른 항목별 총체적 전략 인식의 차이 검증

		구 분	상 Mean (SD)	중 Mean (SD)	하 Mean (SD)	합계 Mean (SD)	F
총체적 독해전략 사용 인식	1	목적을 염두 해 두고 읽는다.	3.32 (.96)	3.23 (.93)	3.15 (.92)	3.22 (.93)	.344
	3	지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연관시킨다.	3.47 (.86)	3.31 (.96)	3.33 (.90)	3.33 (.90)	.585
	4	독해를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의 글인지 알아보기 위해 쭉 훑어본다.	3.21 (1.21)	3.33 (.95)	3.04 (1.01)	3.23 (1.02)	1.504
	7	독해를 하기 전에 지문의 길이, 구성과 같은 특징들을 먼저 파악한다.	3.08 (1.07)	3.01 (.98)	2.91 (.94)	3.00 (.99)	.361
	11	독해를 할 때 주의 깊게 읽을 내용과 대충 읽고 넘어갈 부분을 파악하여 읽는다.	3.13 (1.09)	3.26 (1.06)	3.08 (.91)	3.19 (1.03)	.647
	14	지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문에 나와 있는 표, 수치, 그림 등을 이용한다.	4.08 (.48)	3.72 (.87)	3.75 (.87)	3.80 (.83)	2.774
	19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볼드체나 이탤릭체로 쓰여 진 글자에 주의를 기울인다.	3.42 (.85)	3.40 (1.06)	3.23 (1.03)	3.36 (1.01)	.592
	20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2.37 (.88)	2.23 (.90)	2.23 (.66)	2.25 (.84)	.44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2	독해를 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등장할 때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3.21 (.84)	3.13 (.88)	2.91 (.88)	3.08 (.88)	1.619
	26	지문에 관해 내가 추측한 것이 맞았는지 확인한다.	3.45 (.76)	3.45 (.89)	3.28 (.86)	3.41 (.86)	.732
	30	지문의 내용이 나의 독해 목적에 합당한지에 대해 생각한다.	2.87 (.93)	2.80 (.95)	2.81 (.92)	2.82 (.93)	.072
	31	글을 읽을 때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3.63 (.81)	3.48 (.85)	3.43 (.79)	3.50 (.83)	.680
	33	지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맥상의 단서를 사용한다.	3.74 (.76)	3.68 (.84)	3.49 (.80)	3.64 (.81)	1.320
	36	독해를 할 때 지문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추측해 본다.	3.61 (.67)	3.59 (.84)	3.47 (.89)	3.56 (.82)	.450

(2) 독해능력에 따른 지원적 독해전략 사용 인식의 차이 검증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해능력별 지원적 전략 사용 인식의 항목 간 평균을 보면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치기(3.83±.92), 번역하기(3.58±.92), 앞뒤 내용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읽기(3.40±.84) 전략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고, 반면에 스스로 질문하기 (2.33±.92), 메모하기 (2.56±.94), 다른 말로 바꾸거나 요약하기(2.59±.94)는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는 전략들로 나타났다. 독해능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지문에 밑줄 또는 동그라미 등을 표시하기로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밑줄 또는 동그라미를 표시를 하지만 상위 집단일수록 이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6

독해능력에 따른 항목별 지원적 전략 인식의 차이 검증

구 분			상	중	하	합계	F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지원적 독해전략 사용 인식	2	지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메모를 하며 읽는다.	2.58 (1.03)	2.56 (.93)	2.57 (.91)	2.56 (.94)	.007
	5	지문이 어려워 질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소리 내어 읽어본다.	2.87 (1.04)	2.86 (1.03)	2.77 (1.10)	2.84 (1.04)	.150
	9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지문에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 등을 표시한다.	4.05 (.89)	3.87 (.85)	3.58 (1.04)	3.83 (.92)	3.14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2	지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과 같은 참고 자료들을 사용한다.	3.26 (1.00)	3.24 (1.05)	3.13 (1.09)	3.22 (1.05)	.242
	17	지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문의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거나 요약해 본다.	2.71 (.92)	2.59 (.95)	2.51 (.95)	2.59 (.94)	.495
	21	지문 내용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문의 앞뒤를 살피며 읽는다.	3.47 (.83)	3.42 (.83)	3.30 (.86)	3.40 (.84)	.546
	25	지문 상에서 내가 대답하고 싶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2.34 (.78)	2.40 (1.00)	2.17 (.82)	2.33 (.92)	1.094
	2	독해를 할 때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며 읽는다.	3.53 (.83)	3.67 (.98)	3.45 (.84)	3.58 (.92)	1.056
	29	독해를 할 때 지문의 정보를 영어와 우리말 두 가지 언어로 생각한다.	3.00 (.90)	3.22 (1.07)	2.91 (.86)	3.09 (.99)	1.973
	32	흥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이나 견해에는 밑줄을 친다.	3.47 (.97)	3.55 (1.02)	3.38 (1.07)	3.49 (1.02)	.507

* $p<.05$

(3) 독해능력에 따른 항목별 문제해결 독해전략 사용 인식의 차이 검증

표 7에서 보듯이 독해능력별 문제해결 전략 사용 인식의 항목 간 평균을 보면 집중하기(3.66±.82), 문맥을 통해 단어나 표현의 의미 추측하기(3.66±.85)를 같은 수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했으며, 다음으로 이해를 위해 다시 읽기(3.63±.90)가 뒤를 이었다. 반면에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한 항목은 속도나 방법 조절하며 읽기(3.10±.99)와 지문이 어려워질 경우 더 집중해서 읽기(3.11±.98) 로 나타났다.

독해능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집중력을 잃었을 때 다시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천천히 주의 깊게 읽는다」, 「지문이 어려워질 경우 더 집중해서 읽는다」, 그리고 「독해를 할 때 모르는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문맥 속에서 추측하려고 노력 한다」로 나타났다. 이 독해전략 항목들 중에서 천천히 주의 깊게 읽기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상위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독해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독해 과정을 감시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문맥을 활용하여 의미를 추측하는 전략들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상위 집단이 문제 해결 독해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위 집단 일수록 독해 과정 중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문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문제 해결 전략들을 다양하게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7

독해능력에 따른 항목별 문제해결 전략 인식의 차이 검증

		구 분	상 Mean (SD)	중 Mean (SD)	하 Mean (SD)	합계 Mean (SD)	F
문제해결 전략 사용 인식	8	집중력을 잃었을 때 다시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3.92 (.74)	3.82 (.67)	3.15 (.94)	3.66 (.82)	16.160***
	10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천천히, 주의 깊게 읽는다.	3.42 (.94)	3.59 (.86)	3.21 (.88)	3.46 (.89)	3.457*
	13	지문이 어려워 질 경우 더 집중해서 읽는다.	3.29 (.95)	3.19 (1.04)	2.81 (.81)	3.11 (.98)	3.501*
	15	독해 중 가끔 멈추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본다.	3.34 (.90)	3.27 (1.00)	3.13 (.98)	3.25 (.97)	.576
	24	지문이 어려워지면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읽는다.	3.84 (.78)	3.65 (.97)	3.45 (.78)	3.63 (.90)	2.101
	27	독해를 할 때, 모르는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문맥 속에서 추측하려고 노력한다.	3.92 (.67)	3.67 (.87)	3.45 (.86)	3.66 (.85)	3.446*
	34	읽은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 지문의 정보를 머릿속에 그리거나 시각화한다.	3.03 (.91)	3.21 (.97)	3.15 (.88)	3.16 (.93)	.526
	35	읽고 있는 내용에 따라 독해 속도나 방법들을 조절하며 읽는다.	3.18 (1.01)	3.10 (1.01)	3.10 (.92)	3.10 (.99)	.185

* $p<.05$ *** $p<.001$

(4) 독해능력에 따른 지엽적 독해전략 사용 인식의 차이 검증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엽적 전략 중에서 「독해를 할 때 각 단어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인다(3.41±.85)」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해를 할 때 글의 주제 파악보다 개별 문장들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인다(3.04±.90)」는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독해능력과 지엽적 전략 사용 인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8

독해능력에 따른 항목별 지엽적 전략 인식의 차이 검증

		구 분	상	중	하	합계	F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지엽적 전략 사용 인식	6	글이 말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모두 정확히 알려고 한다.	2.61 (.88)	2.64 (.89)	2.60 (1.04)	2.26 (.92)	.036
	16	독해를 할 때 각 단어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인다.	3.18 (.83)	3.52 (.86)	3.32 (.82)	3.41 (.85)	2.618
	18	독해를 할 때 문장 구조나 문법에 주의를 기울인다.	2.79 (.90)	2.96 (.99)	2.74 (.94)	2.87 (.96)	1.163
	23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접두사나 접미사 등 단어 구조를 분석하여 의미를 알아낸다.	3.24 (.97)	2.96 (1.07)	2.81 (1.00)	2.98 (1.04)	1.871
	37	독해를 할 때 글의 주제 파악보다 개별 문장들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인다.	2.95 (.80)	3.08 (.97)	3.02 (.84)	3.04 (.90)	.324

2. 독해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용 독해전략의 차이 검증

대학생의 독해전략 사용에 대한 메타인지 인식과 실제 사용 독해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체적, 지원적, 문제 해결, 그리고 지엽적 독해 전략들에 대한 학습자들의 평소 사용 인식과 독해 시험을 보면서 실제 사용한 독해전략 간에 t-test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독해전략 사용에 대한 대학생의 메타인지 인식과 실제 사용 독해전략에는 차이가 있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듯이 문제 해결 전략을 제외한 총체적 전략($t=3.109$, $p<.01$), 지원적 전략($t=6.949$, $p<.001$) 그리고 지엽적 전략($t=3.114$, $p<.01$)에서 인식과 실제 사용 독해전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변수에서 독해전략에 대한 사용 인식이 실제 독해전략 사용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어 학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실제적으로 그러한 전략들에 대한 지식을 독해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독해전략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러한 지식들이 독해 과정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 전략의 적극적 사용은 아마도 문제 해결 전략들이 독해 과정 중에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Baker 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Brown(1984)는 어떤 것을 아는 것(knowing that: declarative knowledge)과 방법을 아는 것(knowing how: procedural knowledge)은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독해전략에 대한 인식과 실제 독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러한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메타인지 인식과 실제 사용 독해전략 간의 차이 검증

변 수		N	Mean	SD	t	p-value
총체적 전략	메타인지 인식	202	3.22	.46	3.109	.002**
	실제 사용 독해전략	202	3.12	.41		
지원적 전략	메타인지 인식	202	3.09	.42	6.949	.000***
	실제 사용 독해전략	202	2.84	.48		
문제해결전략	메타인지 인식	202	3.39	.49	1.015	.311
	실제 사용 독해전략	202	3.35	.51		
지엽적 전략	메타인지 인식	202	2.98	.53	3.114	.002**
	실제 사용 독해전략	202	2.84	.56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독해능력에 따라 대학생들의 독해에 대한 메타인지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독해전략사용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용 독해전략의 차이를 고찰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의 독해에 관련된 인식과 독해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보다 효과적인 독해지도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첫째, 대학생들의 독해능력에 따른 메타인지 인식의 차이, 둘째, 대학생들의 독해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과 실제 독해전략 사용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해능력에 따른 대학생의 메타인지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신감 인식, 어려움 인식, 효과적인 독해전략 인식, 그리고 문제해결 전략 사용 인식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독해능력이 우수할수록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독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인식은 독해 능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효과적인 독해전략 인식에서는 상향식 독해전략과 하향식 독해전략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위집단일수록 하향식 독해과정을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독해전략 사용 인식에서는 문제해결 전략에서만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위 집단 일수록 문제 해결 전략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해전략 사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메타인지 인식과 실제 사용 독해전략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 해결 전략을 제외한 총체적 전략, 지원적 전략, 지엽적 전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독해 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그러한 독해전략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해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은 독해전략에 대한 지식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들은 독해전략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실제 사용에 있어 그러한 지식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독해에 대한 자신감은 실제 사용 독해전략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영어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독해를 저해시키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극복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북돋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해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진 어휘와 문법 지식,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낮은 자신감을 보인 항목인 비판적 읽기와 내용 예측하기 능력이나 대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진관(2007)의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어휘와 문법을 독해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였고, 비판적 읽기와 예측하기를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인식했다는 동일한 결과가 보고 됨으로써 독해지도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한다고 본다. 방법적인 면에서 Nation(2005)은 새로운 어휘는 흥미와, 의식적인 집중, 그리고 새로운 문맥에서 단어를 사용해 보는 환경에서 습득될 수 있다고 보았고, 신길호(2000)는 어원을 통한 어휘신장의 효과를 언급하였는데, 효과적인 어휘 실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와 능력별 단계에 맞는 교수방법론적인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상위집단이 중하위 집단보다 하향식 항목에서 독해 전략들을 더 효과적인 전략으로 인식한 반면, 중.하위집단은 상향식 항목에서 독해전략을 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으로 인식하여 독해 능력별 차이를 보였는데, 하향식 항목에서만 독해능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 진혜원의 연구(2002)와 독해 능력별 상향식 항목과 하향식 항목 모두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박민아(1998)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독해 전략에 대한 인식이 독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향식, 하향식 독해과정의 우위성을 나누기 보다는 EFL 환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에서 해독과정과 이해과정을 모두 필요로 독해의 특성을 이해하고 독해 능력과 과제에 맞게 효과적인 전략들을 더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문화에 대한 이해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항목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외국어교육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시키고 영어교육에서 문화적인 요소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독해전략 사용에 대한 메타인지 인식과 실제 사용 독해전략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학습자들은 문제해결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박혜선(2013)도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문맥을 통해 단어의미 추측하기, 집중하기, 속도 조절하기 등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독해전략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해결 전략을 제외하고 총체적 전략, 지원적 전략 그리고 지엽적 전략의 메타인지 인식과 실제 사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전체적으로 독해전략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에 비해 그러한 지식들을 사용하는 실제적인 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은 메타인지 지식 범주 중에서 선언적 지식은 있지만 절차적 지식이나 조건적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Hartman(2001)은 학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지만 소홀히 다루어지는 면이 학습자들이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학습자들이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데 동기화 되어 있지 않거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또는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았다. Paris와 Winograd(1990)은 메타인지 인식을 일깨우는 훈련을 통해 첫째, 학습을 모니터 하는 책임을 교사로부터 학생 스스로에게 전이할 수 있으며 둘째,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높이고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의 독해 과정에 대한 메타인지 인식의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자신들의 학습과정과 독해전략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제공하여 자신들 스스로 학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타인지 인식을 일깨우는 활동을 독해수업 과정에 포함시켜 지도함으로써 독해전략에 대한 메타인지 인식을 높이고 그러한 메타인지 지식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약하면, 메타인지 인식은 자신과, 학습과제와 독해전략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독해자로서의 자신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학습 과제와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보다 효과적인 전략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타인지 지식과 전략들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독해 수행에서 자신과 과제 그리고 다양한 전략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그러한 이해와 지식을 독해 수행 과정에 반영하여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은 메타 인지적 활동으로 능동적이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독해에 대한 메타인지 인식과 독해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는 인지적 처리자로서 학습자의 독해 과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독해를 저해하는 요인과 효과적인 독해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독해지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난이도와 유형별 다양한 독해과제에 따라 독해전략 사용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유능한 독자가 과제의 난이도와 유형별 과제에 따라 어떠한 전략들을 어떻게 조율하여 사용하는지 밝힘으로써 효과적인 독해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김용주. (2005). 고등학생의 영어 독해 성취도에 따른 독해전략과 상위인지 인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진관. (2007). 한국 고등학생들의 상위인지 인식이 영어 독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민아. (1998). 영어 독해전략의 사용 및 초인지 인식의 역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길호. (2000). 영어독해의 학습과 지도. *강원대학교 출판부.*

진혜원. (2002). 영어 독해전략 사용 및 상위인지 인식이 영어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nderson, N. J. (1991). Individual differences in strategy use in second language reading and testing. *Modern Language Journal, 75,* 460-472.

Anderson, N. J. (1999). *Exploring second language reading: Issues and strategies.*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Baker, L., & Brown, A. L. (1984). Metacognitive skills and reading. In P. D. Pearson, M. Kamil, R. Barr, & P. Mosenthal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pp. 353-394). New York, NY: Longman.

Barnett, M. A. (1988). Reading through context: How real and perceived strategy use affects L2 comprehension. *Modern Language Journal, 72*, 150-162.

Block, E. L. (1986). The comprehension strategies of second language readers. *TESOL Quarterly. 20*(3), 463-491.

Brown, A., Bransford, J., Ferrara, R., & Campione, J. (1983). Learning, remembering, and understanding.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77-166).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Carrell, P. L. (1989). Metacognitive awareness and second language reading. *Modern Language Journal*, *73,* 121-134.

Carrell, P. L., Gajdusek, L., & Wise, T. (1998). Metacognition and EFL/ESL reading.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Instructional Science, 26(1 & 2), 97-112.

Carrell, P. L., Pharis, B. G,. Liberto, J. C. (1989). Metacognitive strategy training for ESL Reading. *TESOL Quarterly*, *23*(4), 647-678.

Chin, Cheongsook. (2009). Case studies in EFL reading: Perceptions, experiences, and strategi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4), 1-22.

Cohen, A. D. (1998) *Strategies for learning and using a second language.* New York: Longman.

Cross, D. R., & Paris, S. G. (1988). Developmental and instructional analysis of children's metacogni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131-142.

Flavell, J. H. (1979).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cognitive 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34(10)*, 906-911.

Garner, R. (1987). *Metacogni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Norwood, NJ: Ablex.

Grabe, W., & Stoller, F. (2002). *Teaching and researching reading.* Harlow, England: Pearson Education .

Hartman, H. (2001) Developing students' metacognitve knowledge and strategies. In: HJ Hartman (Ed): *Metacognition in Learning and Instruc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33-68). Kluwer Academic Publishers.

Hudson, T. (2007). *Teaching second language reading.*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Hosenfeld, C. (1977).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reading strategies of successful and nonsuccessful second language learners. *System*, *5*, 110-123.

Kletzien, S. B. (1991). Strategy use by good and poor comprehenders reading expository text of different level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6,* 67-86.

Mokhtari, K., & Sheorey, R. (2002). Measuring ESL students awareness of reading strategies. *Journal of Developmental Education, 25*(3), 2-10.

Monteiro, S. Q. (1992). *A contrastive investigation of reading strategy awareness and reading strategy use by adolescents reading in the first language (Portuguese) and in the foreign language* (English). Unpublished doctoral thesis. Essex University.

Nation, P. (2005).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In E. Hinkel (Ed.), *Handbook of research o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pp. 581-595). Mahwah, NJ: Lawrence Erlbaum.

Paris, S. G., Lipson, M. Y., & Wixson, K. K. (1983). Becoming a strategic reader.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8*(3), 293-316.

Paris, S. G. & Winograd, P. (1990). How metacognition promotes academic learning and instruction. In B. F. Jones & L. Idol (Eds.), *Dimensions of thinking and cognitive instruction* (pp. 15-51). Hilldale, H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ark, Hyeson (2013).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ies among Korea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college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19*(2), 155-172.

Sheorey, R. & Mokhtari, K. (2001). Differences in the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ies among native and non-native readers. *System, 29,* 431-449.

Upton, T. A. (1997). First and second language use in reading comprehension strategies of Japanese ESL student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lectronic Journal, 3*(1). Retrieved October 15, 2009 from http://tesl-ej.org/ej09/a3.html.

Ying, G. & Alysia D. R. (2011). Roles of general versus second language (L2) knowledge in L2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23*(1), 42-64.

Zhang, L. J. (2001). Awareness in reading: EFL students' metacognitive knowledge of reading strategies in an acquisition in poor environment. *Language Awareness, 10*(4), 268-288.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최숙자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충남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268
Tel: 041-560-8170
Email: jmjk98@yahoo.co.kr

장선미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충남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268
Tel: 041-560-8178
Email: schang@hoseo.edu

Received in October 15th, 2013
Reviewed in November 26th, 201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5th, 201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